2014

일필휘지(一筆揮之, In One Stroke)
-소통을 넘어 내면의 세계를 향하다-

자넬 자라

서예(Caligraphy)는 의사소통의 수단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붓을 다루는 행위를 통해 마음의 수양을 쌓고 내면의 혼란을 비워내는 모습으로 동양의 전통 문화에서 발달하였다. 완벽한 선(線)의 구성에는 작가의 삶 속에 내재된 강인함과 몸가짐의 흔적이 살아있으며 한 번의 손놀림으로 그 특징을 표현한다. 한 번의 손놀림으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일필휘지(一筆揮之)'는 서예가 자신의 내면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에 도달하는 도(道)의 상태에 이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의 예술가 최병훈은 'In One Stroke', 즉 '일필휘지' 주제의 뉴욕 전시에서 화선지에 그린 '일필휘지'의 필획을 벤치 형태의 아트퍼니처로 전개하며 작가 자신 내면의 고요함을 구현해 내고 있다. 최병훈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채취한 화산석인 현무암으로 필묵을 대신하여 글씨나 그림을 단숨에 그려 내듯이 한 획의 오브제를 완성시킨다. 이 작업 과정에서 작가는 화선지에 그렸던 필획을 기념비적인 현무암의 표면으로 옮겨 형태를 그리며. 이 후 궁극적으로 붓 대신에 다양한 석재 연마공구들을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작가는 모래흙으로 덮인 현무암의 표면을 부드럽게 조각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하는데, 추운 겨울 야외 작업에서는 물이 어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토치(blowtorch)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최병훈은 수작업을 통하여 우아한 균형 감을 유지하도록 활 모양으로 돌을 조각하고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 나감으로써, 현무암의 마티에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블랙 스킨 자체의 광택을 발현하도록 하여 또다른 조형성을 모색하였다.

이번 프리드만 벤다(Friedman Benda) 갤러리 전시회에 출품된 <태초의 잔상 013-400 (Afterimage of Beginning 013-400)> (2013)은 두 개의 교차 곡선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 작품 외에 튜브 모양의 블랙 현무암 조각들이 여러 점 설치되어 있다. 이 우아한 블랙 현무암 작품들은 거친 땅의 느낌을 환기시키는 황토색 표면을 뚫고 뻗어 나와 있거나, 그 돌 위에 우아하게 올려져있다. 실제로 이 작품들은 한 덩어리 돌에서 조각되어진 것으로 부분적으로 원석의 상태를 유지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분적인 원석의 상태 유지는 작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닻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이러한 작업을 보면서 현무암의 자연 상태를 떠 올리게 한다. '일필휘지'는 지난 30여년 동안 한 우물을 파온 최병훈의 작업에 있어 또 하나의 새 로운 장(場)을 열어준다. 서울과 파리에서의 전시 이후, 뉴욕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에 서 그는 이전과 달리, 하나의 '개념'을 일관적으로 펼치는 작품을 발표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번 전시에서 '서예'를 표현의 수단이 아닌 하나의 '주제'로 실험한다. 서예는 작가의 다년간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서예의 근본적인 정신세계을 구현하고자 한다. 다른 서예가들과 마찬가지로 최병훈의 작업태도는 내면의 깊이를 찾으며 마음을 비워나가는 자기성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트라디자인미술관(Vitra Design Museum)의 설립자인 알렉산더 폰 페게작 (Alexander von Vegesack)은 최병훈의 작업에 흐르는 서정적이면서도 절제된 형태 미를 논하며, 모던미학과 아시아의 전통을 실험했던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 와 서로 비교하였다. 폰 페게작은 2008년 "최병훈과 노구치의 공통점은 유기적이면서도 형태의 단순화를 추구하는 성향과 자연적 요소들을 적용하려는 성향, 그리고 그들 의 작품으로부터 우러나는 "거대한 평온함"에 있다고 하였다. 노구치의 작품처럼, 최병훈의 예술작품은 조각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내면의 고요함을 불어넣는 명상적인 오브제로 평가된다.

최병훈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태초의 잔상 07-242 (Afterimage 07-242)>(2007)은 단풍나무와 너도밤나무 베니어판을 겹쳐 적층곡목 기법을 이용한 물결모양의 의자로 거친 질감의 둥근 회색 돌을 바닥에 올려놓아 마치 앉는 부분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 럼제작되었다. 이의자에앉는사람은돌을마주하며명

상에젖는동시에,돌의무 게가 의자의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장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의자는 앉는 사람과 돌 사이에 명상의 내재함이 현현하다.

최병훈은 인터뷰에서, 작가로서의 자기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의 전통과 유산이라고 논한다. 2010년, 작가는 “한국인은 외부세계에 드러난 가시적인 표현보다 내부세계를 더 중요시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계속해서, “한 개인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술가 스스로의 명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 붙인다. 작가의 정신성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국의 선(禪), 즉 Zen의 철학 에 근간을 두고 있다.

최병훈은 자신의 작품을 논하면서, 한국의 선과 함께 조선왕조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 성리학’의 정신성을 함께 설명한다. 성리학은 실용성과 검소함,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절제된 교리를 따르는 미학적 태도를 높이 평가해왔다. 그는 “Zen은 나 스스로 의 내면세계에 몰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리학을 통해서, 자기훈련으로 올바른 인간성과 완전한 인간의 미덕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최병훈의 초기작품들은 작가 개인의 어린 시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자연과의 직 접적인 대화를 통해 구현된 형태들이다. 즉, 자연에서 출발한 작업들이다. 그는 1983 년 이후 발표한 <채집된 곤충 (Collected Insects)> 시리즈 작품을 회고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화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자연의 오묘한 섭리는 나에게 많은 영감과 교훈을 준다”라고 썼다. (『월간디자인(Monthly Design)』 1987년 5월호) 당 시 초기 작업은 향수 용기, 삼각형 서랍 등의 일상적인 목재로 제작된 오브제 작품들 로서 그 형상은 곤충을 암시한다. 그는 산림이 울창한 강원도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직접 경험했던 자연 이미지들에 일종의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작품들의 원동력을 “언제나 뛸 것 같은 힘차고 순발력 있어 보이는 가는 다리,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더듬이, 종이보다 얇은 날개의 신비스런 보호색과 놀랄 만큼 정확한 대칭 현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채집된 곤충’ 시리즈의 작품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0년대에 최병훈은 생명체의 재현적 묘사 대신에, <태초의 잔상 (Afterimage of the Beginning of the World)> 시리즈들을 통해서, 타원형과 원형으로 잘 연마된 목재와 석재 작품들을 제 작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Afterimage’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전 세계와의 상상 속 신비로운 만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상의 세계는 나로 하여금 창조적 충동을 일 으켜 나를 다시 미지의 세계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이후, 최병훈은 도교(道教)와 선(禪)을 중요한 미학으로 사유하며,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특히, 목재와 돌을 결합하여 기둥과 받침대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 작품에서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는 밝음과 어두움, 무거움과 가벼움, 부드러움과 거침이라는 대조적인 요소들을 나란히 병치시키고 있다. 상반된 요소를 아우르는 균형감은 <잔상 0091 (Afterimage 0091)> (2000)에서 드러나듯이, 일종의 무중력 상태와 같은 환영을 일으키기도 한다. 즉, 광활한 대지에서 금발의 아름다운 빛깔을 띠고 있는 단풍나무가 광택이 나는 검정 화강암의 정사각형 블록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더불어 최병훈은 수직으로 세워진 돌 위에 나무를 얹는 작품들을 제작했다. 이는 한국 신석기 시대의 무덤양식인 고인돌의 형태를 연상시 키는 테이블로, 작가는 ‘조각적 가구(Sculptural Furniture)’라는 영역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며 가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최병훈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에서 구축된 전통적 디자인 요소를 현대미학과 맞닿게 하면서 자연의 세계와 명상을 서로 결합시켰다. 이러한 여정은 물론 작가 개인의 성찰과정이기도 하지만, 내면의 침묵을 향한 그의 여정은 작가 혼자만의 것으로 남지만은 않는다. 왜냐하면, 최병훈은 관객이 스스로 사물의 흔적과 침묵을 사유하는 선(禪) 의 실재적 공간을 창조하게 함으로써 그가 말하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더불어 성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는 극도의 절제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들의 내적 존재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외부 세계의 시끄러운 소음보다 자기성찰을 선택한다.”